

01 교회소식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추수감사절을 맞아 참 생명을 주시고 구원과 응답,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02 생명의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 시리즈 4

양손의 지혜는 진리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가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편을 택할 수 있는 선의 깊은 차원이다.

03 기획특집

인도 델리 만민교회 창립 10주년 맞아

랜선으로 진행된 창립 기념 예배는 줌(zoom)과 유튜브(GCNTV HINDI)로 송출되어 인도는 물론 영국, 호주, 파키스탄에서도 함께했다.

04 간증

“하루하루가 천국입니다!”

건강이 회복돼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척추 통증과 극심한 허리 통증을 치료받은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81호 2022년 11월 2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 감사가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풍성한 수확물로 추수 감사제를 드리면서,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고난의 때를 잊지 않고 기념케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명심해 다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신 사랑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을 주시고 구원과 응답은 물론,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수 감사 주일 예배 온라인 성찬식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교회는 11월 20일 주일, 감사예배 및 성찬식을 거행한다.

대예배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요 14:12~14)이라는 제목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영상설교가 있으며, 저녁 예배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요 6:53~55)이라는 말씀을 전한 후 성찬식을 집례한다.

성찬식은 GCN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돼 우리 교회는 물론 국내외 지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각자 준비해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학습식은 11월 13일(주일)에, 세례식은 20일(주일)에 있다.

2023년 일꾼 선출을 위한 총회

오는 11월 27일 주간부터 장로회, 권사회, 남녀 지역장·조장·구역장, 빛과소금선교회, 학생주일학교 교사연합회에서 2023년을 짊어질 하나님 일꾼을 뽑는 총회가 시작된다.

12월 4일(주일)에는 남녀선교회, 청년, 가나안, 중고 등부, 기도제물, 만민봉사대, 아동주일학교 교사연합회 등에서 연합총회를 하고, 11일(주일)에는 각 선교회 및 기관총회가 있다.

총회를 통해 선출할 일꾼의 기준은 첫째 기도하는 사람, 둘째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사람, 셋째 온전한 십일조를 하는 사람, 넷째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 다섯째 희생과 순종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여섯째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 일곱째 리더십이 있는 사람, 여덟째 겸손한 사람이다.

만민의 이름으로 펼쳐질 끝없는 영광을...

하루하루의 날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쌓여 왔으므로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큼이며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축복이 쌓여 있음이니이다. 지금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 제단에 주실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지내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하는 이들을 변화시키셨고 이제 변화시킬 이 많은 영혼들에게 미치리니 아버지의 권능은 한이 없으시리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만민에게 보이심이며 영혼들에게 보이심이니 기대하나이다. 사랑하는 만민의 이름으로 펼쳐질 끝없는 영광을...



앞으로 펼쳐질 끝없는 축복과 영광을 기대하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 저서 ‘고백’ 중



당회장 이재록 목사

양순의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야고보서 3:17~18)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라, 선을 행하라”고 당부하시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눈앞의 유익을 좇아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며 선을 행하지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선을 좇아 죄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며 화평을 좇는 사람은 관용과 양순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면서 임하는 넉넉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나오는 덕목이지요. 지난 호 ‘관용의 지혜’에 이어 오늘은 ‘양순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양순'의 영적 의미

‘양순’은 영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말과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과 진리로 가득하면 외적으로도 단물만 내는 입술의 열매와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선하다고 해서 단순히 착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선과 진리로 가득 찬 마음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이끌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양순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사람은 상대에게 맞춰서 상담해 준다고 해도 문제 해결은 그 순간뿐,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가 비슷한 문제를 들고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순의 열매가 맺히면 몇 마디 대화로도 상대의 상태를 분별해 생각하는 방향 자체를 선하게 바꿔줄 수 있으니 상대는 시원함과 평안함을 얻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순’은 단순히 착하고 순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가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편을 택할 수 있는 깊은 선의 차원인 것입니다.

2. '양순'의 세 가지 특징

1)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로 문제의 핵심을 분별하여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모의 유산을 공평히 나누도록 자기 형에게 권면해 달라고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형제간에 감정 상할 일이 또다시 생길 수 있고, 탐심을 버릴 때야 하나님께서도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잔치를 열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양할 때 갑자기 왕궁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뜻 모를 글자를 씁니다. 왕은 이 글자를 해석하면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하지요.

결국 다니엘을 통해 교만한 왕의 행동이 문제의 원인이며, 나라가 메테와 바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을 뿐,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향락을 즐기므로 나라를 빼앗기고 목숨마저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고 다니엘의 지혜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니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상담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마음으로 받고 행해 자신부터 변화시킬 때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한 지혜로 주변을 변화시켜 나갈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2)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도 잠잠히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자족합니다

양순의 마음을 이루면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도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빌 4:11~13).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감내해 나가지요. 당면한 어려움보다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불편한 기색을 바로 드러냅니다. 초조해하고 안색이 변해 주변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기도 하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하나님 역사는 더더욱 체험할 수 없으며 주변의 인심까지 잃고 맙니다.

양순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당황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며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늘 평안하지요. 더 나아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택하여 행합니다. 물론 전혀 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깊은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으니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신뢰가 진실할 때 멋지게 응답해 주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롬 8:28).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믿는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 안에서 자신이 갈 길을 찾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순의 마음으로 범사에 자족하며 선을 좇아 행해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혹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는 ‘양순의 지혜’입니다

3)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 이상으로 행합니다

양순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범사에 더 좋은 것을 분별하여 행합니다. 하나를 명하셔도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 둘, 셋 혹은 그 이상을 해내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시며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가 많습니다. 한쪽은 진리, 다른 한쪽은 비진리라면 당연히 진리를 선택하겠지만 둘 다 진리라면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양순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께 더 영광되는 것을 택하지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 중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증한 짐승들이 들어 있을 수 있기에 환관장에게 물과 채식만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독하는 자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라고 제안했는데 결국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지요. 이같이 하나님 앞에 더 옳고 선한 쪽을 택하려는 그들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단 1:17) 그들은 왕의 인정을 받아 높은 지위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더 합한 쪽을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선한 것을 택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축복이 아니라 시련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하며, 이는 영적 담대함이 있을 때야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양순의 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환관장과 감독하는 자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그들이 얼마나 선하고 성실하게 행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독하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평소에 선한 행함을 쌓았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내보일 때 주변의 이해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중요한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싶는데 직장의 업무 상황이나 휴가 일정이 맞지 않거나 가족 모임과 겹칠 수 있지요. 이러한 경우에 배려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선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평소에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다가 필요할 때만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영적 믿음도 아니며 자기 욕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3. 양순의 마음을 이룬 사도 바울

1)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마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도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며,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그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고전 8:13) 고백하지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자연히 우상의 제물로 쓰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인 줄 모르고 사 먹는 경우가 있어서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먹기 전에 우상의 제물인 줄 알았다면,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먹어야 할 상황이라면 먹어도 죄가 되지는 않지요(롬 14장). 단순히 음식으로써 먹을 뿐,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먹는 것 자체가 꺼림칙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것으로 생각해 판단 정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면서 거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지요. 단순히 음식물로 생각하고 먹으면 상관 없지만, 우상의 제물로 생각하고 양심에 찢리면서 먹으니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행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의 송사 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롬 14:23). 또한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거듭해 나간다면 양심이 점점 무뎌져 나중에는 큰 죄를 범하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를 본 사람이 실족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2) 마땅히 쓸 권리를 쓰지 않는 마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권리,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지요. 일하지 않고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였는데, 이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사랑해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기뻐하시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양순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면 항상 선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에 가득한 선이 말과 행함 가운데 저절로 배어 나옵니다. 범사에 본이 되어야 하는 주의 종이냐 일꾼들은 더욱 양순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때가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 앞에 더 합한 것인가?' 하며 겸비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택해 나갈 때 더욱 온전케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당장 온전하여지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시지만, 스스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다면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 사심이 없는 만큼 모든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인해 기쁨을 얻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에 장차 천국에 이르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을 택하는 양순의 지혜를 받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인도 델리 만민교회 '랜선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권사 취임 예배'

지난 11월 8일(화) 오후 1시 30분(현지 시각 오전 10시), 이미경 목사(교역자회 회장)를 강사로 인도 델리 만민교회 '랜선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권사 취임 예배'가 있었다.

이날 예배는 줌(zoom)과 유튜브(GCNTV HINDI)로 송출되어 인도는 물론 영국, 호주, 파키스탄에서도 함께했으며 영어, 힌디어, 타밀어, 보즈푸리어, 우르두어로 동시통역 되었다.

담임 김상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 예배는 난시 집사(델리 만민교회)의 특송 후, 이미경 목사가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리라'(롬 10:10)는 설교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했다. 그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환자 기도를 해 줌으로 많은 성도가 질병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아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부에는 이미경 목사의 집례로 권사 취임식이 있었으며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델리 만민교회의 사역 영상과 무용팀의 축하공연이 상영돼 창립의 기쁨을 더했다.

한편, 권사로 취임한 라타 어거스틴 집사(59세)는 델리 만민교회 여선교회 회장과 아동주일학교 주교사로 충성하며 SNS를 통해 가정교회 성도 자녀들의 성경 공부방 운영 등으로 헌신하고 있다.



“저는 척추 통증이 사라지고, 남편도 호전돼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타 성도 (31세, 인도 델리 만민교회)

저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다가 척추에 문제가 생겨 통증으로 인

해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호흡하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순일쿠마, 36세)은 2년 전에 사고로 목의 신경이 눌리면서 보행 장애가 생겼고 이후 척추디스크와 퇴행성 요추 질환으로 발전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남편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일도 할 수 없어서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지요.

그러던 중 간신히 돈을 마련해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의 상태는 수술해도 완치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영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은 2022년 1월에 수술받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일어나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제가 안아서 옮겨야 했지요. 그러다 보니 제 척추까지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이웃에게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 인터넷으로 ‘환자를 위한 기도’를 검색하였고, 유튜브 채널 ‘GCNTV HINDI’의 이재록 목사님 ‘환자를 위한 기도’ 영상을 찾게 되었지요.

당시 너무나 힘들었던 남편은 2개월 정도 교회에 다니고 치료받지 못하면 자살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록 목사님 환자 기도를 받은 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델리 만민교회 연락처를 보고 전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는 회개하고 성령 받는 기도를 받았지요.

그 뒤 델리 만민교회의 친절한 안내로 저희는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2022년 5월 25일에는 랜선으로 만민중앙교회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난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개월 넘도록 고통받던 저의 척추 통증이 깨끗이 사라져 오래 앉아 있어도 아무 문제 없고 호흡하기에도 전혀 지장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남편의 상태도 호전돼 스스로 화장실도 가고, 계단도 혼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 속에 불안해하고 고통받았지만, 지금은 병세가 호전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니 행복해합니다. 저희는 인도에서 ‘GCNTV HINDI’를 통해 한국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허리의 극심한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박미숙 권사 (51세, 3가나안교회)

2022년 1월 28일 아침, 집에서 청소하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왼쪽 허리를 빼앗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자 저는 원인을 알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 의사는 허리 요추부 5번과 6번이 좁혀 있고 허리디스크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을 체험하였습니다. 허리가 아픈 원인을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트북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가 들린 것입니다. 깜짝 놀란 저는 저절로 켜진 설교 화면을 끄면서 순간 깨우침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경 말씀 안에서 먼저 영적인 원인을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뤄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

한 제 모습을 발견한 것이지요. 섬세하게 깨우쳐 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진정 감사했습니다.

그 뒤 하루 금식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 ‘성경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잊은 것, 감사치 못하고 사랑치 못한 것’ 등 영적으로 신앙의 정체를 가져온 많은 것이 깨우쳐지면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7일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환자 랜선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위로부터 새 힘이 와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했지요.

3월 20일, 원장님께서 인도하신 ‘랜선 기도제물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는 불같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육신육신하고 찌릿 찌릿 바늘로 찌르는 듯한 허리 통증이 신기할 정도로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10월에는 매우 뜻깊고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교회에서 ‘4행시 공모전’이 개최되었는데, 444개의 출품작 중에서 제가 놀랍게도 전체 1등으로 수상한 것입니다.

저는 ‘만민교회’라는 제시어로,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 땅끝까지 교회들이 재창조의 권능으로 깨어나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민족을 넘어 땅끝까지
교회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깨어나
회오리 같은 성령의 불로 가득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성결을 이뤄 참 자녀를 얻기를 원하시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뤄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방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여방동1099-2 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천서로 57 광명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아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